

추도사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지나, 몇 일전이 입동(立冬)이었으니, 이제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오늘 근현대 한국불교의 거목이시며 청정비구승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기틀을 확립하시고 반석위에 올려 놓으신 청담대중사 열반 38주기 추모법회에 애도의 뜻을 포함합니다.

1700년 한국 역사에서 불교는 우리 민족 사상과 문화의 원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삼국·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찬란한 문화를 형성해 왔고, 조선조 500여년의 오랜 억불(抑佛)에서도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이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는 한국불교의 전통이 훼손된 굴절의 시기였습니다. 이 무렵 부처님의 정법과 한국불교의 전통을 다시 세우겠다는 원력으로 승단정화를 위해 용맹정진하신 분이 청담대중사이십니다.

오늘날 한국불교계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조계가풍(曹溪家風)을 세우는 데는 청담대중사님의 원력행이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청담대중사님의 면모는 인욕선인(忍辱仙人)으로 자비보살(慈悲菩薩)로 육도행(六度行)을 철저히 수행하신 명안종사(明眼宗師)이셨습니다. 또 청담대중사님은 통합종단을 이룩한 후부터 열반 때까지 산중불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불교를 이 시대의 중생과 함께하는 불교로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에 선도적인 실천행을 보여준 보살이셨습니다.

이러한 청담대중사님의 애국애종 정신은 불교정화운동, 호국불교사상, 참회정신으로 이어졌으며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승풍진작, 도제양성, 역경과 포교를 통한 불교대중화의 기반을 닦는데 선구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理)와 사(事)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 밝으신 모습을 보이셨던 분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총무원장으로, 종회의장으로, 종정예하로, 또 장로원장으로 종단을 이끄셨으며 수행력 또한 많은 수행자들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성불을 한생 미루더라도 중생을 제도 하겠다”는 말씀은 오늘을 사는 후학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이 살아 숨 쉬는 청정승가(淸淨僧家)의 전통이 이어오는 큰 가르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담대중사님의 정법구현을 위한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신념과 확고한 의지는 정화불사를 이루셨으니 바로 오늘의 대한불교조계종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사님의 원력을 이어받아 혜정, 혜성, 현성, 동광스님 그리고 도선사주지 혜자스님과 문도들은 한국불교의 곳곳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봅니다. 몇 년 사이 도선사 도량이 새롭게 변하였고 포교, 교육, 복지, 문화도량으로서의 위치도 확실히 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108산사순례기도회의 활동은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장을 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촌사랑, 자연사랑, 군·장병사랑, 다문화가정 사랑, 웃어른 공경을 실천하는 효행상까지 시상하고 있어 많은 시행단체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담대중사 열반 38주기를 맞아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 수행자적인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지 큰스님의 행화에 누가 되지는 않았는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청담대중사님의 “부처님 법대로 살자”, “중생제도를 위해 성불도 한생 미루겠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걸겠다.”라는 원력은 오늘날 우리 종단과 후학들에게 언제나 큰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청담대중사님의 큰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1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